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30(금) ~ 2024.9.5(목)

제공일시 2024 09 13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30(금) ~ 2024.9.5(목)

제공일시 2024 09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중국의 그린수소 시장 점유 우려… 수소 프로젝트 보조금 규정 강화

- 유럽연합(EU)이 저렴한 중국산 수소의 유럽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함

- 이는 EU가 제공하는 수소 보조금이 중국 기업이 아닌 유럽 기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처임

- EU는 이번 달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제공할 지원금을 조달하기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짐

(임팩트온 2024.9.4)

2. 日, 온실가스 감축 미달 기업에 과징금 부과 추진

- 일본 정부가 2026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미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내게 하는 논의에 착수함

-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추진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임

(서울경제 2024.9.3)

3.“美, 자국 내 핵심광물 생산에 ‘가격안전망’ 자금지원 검토”

- 미국 정부가 리튬, 니켈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 에너지부 계획안에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시장가격이 설정된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김

-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차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들어가는 광물이 양산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과 차세대 제조업 부양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024.8.30)

국내 정책

1. 전기차 포비아에 '전기 선박' 규제강화… 배터리 이중화·탐지장치 의무화

-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연이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기추진선 안전 규제 강화에 나섬

- '배터리 이중화' '위험성 탐지장치 의무화' 등을 법제화해 전기차 공포가 전기추진선박으로 확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임

- 4일 해양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추진 선박기준(고시)'을 전기추진선 규제가 강화되도록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해당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추진 선박의 설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연내에 보완 작업을 마치고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뉴데일리 2024.9.4)

2. 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국제선 운항한다

- 정부는 30일 국내 항공의 탄소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내 항공사가 SAF 사용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토부와 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할 방침임

-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임

(뉴시스 2024.8.30)

3. 내년부터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됨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함. 또, 이 기관들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함

-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됨

(서울경제 2024.9.3)

글로벌 기업

1. MS, EDPR과 20년짜리 재생에너지 PPA 계약 체결... 싱가포르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

- 글로벌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EDPR(EDP Renewables)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20년짜리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26일(현지시각) EDPR은 보도자료를 내고, MS가 솔라노바 8(SolarNova 8)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 100%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계약은 MS의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에 기여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4.9.4)

2.“현대차 2위 올라서나”… 폭스바겐, 87년 만에 ‘초유의 사태’

- 세계 2위 자동차업체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 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함. 폭스바겐이 본국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것은 1937년 설립된 후 87년 만에 처음임

-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의 공세에 전동화 전환이 더딘 유럽 자동차업체가 무너진 셈임

(한국경제 2024.9.3)

3. 중국 최대 희토류 기업·베트남 최대 에너지 기업 회동… 개발 협력 논의

- 중국 최대 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이 베트남 최대 에너지 기업 석탄광물산업그룹(TKV)과 회동함

-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오홍 중국희토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달 말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 부처와 석탄광물산업그룹,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동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이 만났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임

(더구루 2024.9.2)

4. ASML,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중단… “中, 반도체 산업 타격 불가피”

-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중국 사업 제재를 강화할 방침임

-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수입이 가로막힌 데 이어 심자외선(DUV) 장비에도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임

-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가 올해로 만료되는 중국 내 ASML의 특정 서비스와 예비 부품 제공 라이선스를 갱신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

(조선일보 2024.8.30)

국내 기업

1. 고려아연, 저탄소 공정 '고순도 니켈' 제조 기술 개발 주도

- 고려아연이 국내외 산학연과 손잡고 리사이클링 원료와 저탄소 공정을 접목해 친환경 '고순도 황산니켈'을 제조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함

- 고려아연은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산학연 10곳과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힘

- 이번 과제에는 △에스와이플랜택 △에스쓰리알 △메탈젠텍 △에이치브이엠 △새빗켐 △에스엔엔씨 등 6곳의 기업이 함께함

(지디넷코리아 2024.9.4)

2. 포스코그룹, 아르헨 염수리튬 이르면 올해 첫 반입… 에너지안보력↑

- 포스코그룹이 이르면 올해 안에 아르헨티나에서 확보한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을 국내로 첫 반입함. 포스코그룹은 이미 광석리튬을 국내서 가공해 배터리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여오는 리튬은 염호에서 추출한 염수리튬임

-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국내 반입에 대해 "아직 포스코리튬솔루션 공장이 건설 중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함

(에너지경제 2024.9.4)

3. 신성이엔지, 쌍용건설과 12MW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 해외 진출 신호탄

- 신성이엔지는 쌍용건설과 12MW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힘. 이번 계약은 단일 모듈 수출로는 최대 규모이며, 창사 이래 첫 수출 사례임.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됨

- 계약에 따라 신성이엔지는 오는 10월까지 12MW 규모 태양광 모듈을 쌍용건설에 공급함. 쌍용건설은 해당 모듈을 중남미 아이티의 카라콜 산업단지에 구축되는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됨

(전기신문 2024.9.2)

4. LG전자, 중국 하얼빈에 히트펌프 컨소시엄 구축… 북미·유럽 이어 한랭지 R&D 글로벌 트라이앵글 완성

- LG전자가 아시아에서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하얼빈에 새로운 연구 컨소시엄을 설립하며 북미와 유럽에 이어 글로벌 R&D 트라이앵글을 완성함

- 지난달 31일 LG전자는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교와 '중국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CCAHR)' 설립을 공식 발표함. 이번 협력에는 상해 교통대학교와 시안 교통대학교도 참여하며, 극한의 한랭지에서 고효율 난방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더페어 2024.9.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8.30(금) ~ 2024.9.5(목)

제공일시 2024 09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바이든, 수소산업에 830억원 투입... 트럼프 리스크로 투자 가속화

- 미국 에너지부가 30일 신규 수소산업 개발에 6200만 달러(약 83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해당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15개 주에 위치한 20개 프로젝트에 투입됨

- 제니퍼 M.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청정수소 개발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이고 오염이 심한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의제로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음

- 이 기금은 크게 5개 유형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가장 큰 자금이 투입되는 유형은 트럭용 표준 수소 충전소의 구축임. 4000만 달러(약 536억원)가 4개 프로젝트에 투자됨. 다음으로는 수소연료 공급에 필요한 첨단 부품 개발을 위한 4개 프로젝트에 850만 달러(약 114억원)가 할당됐음

- 700만 달러(약 94억원)는 수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7개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항구에서 사용할 수소 구동 컨테이너 처리 장비를 개발하고 시연하는 1개 프로젝트에 250만 달러(약 33억원)가 지원됨

- 기후 변화와 오염에 더욱 취약한 소외 계층 및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 4개에도 400만 달러(약 54억원)가 투자됨

-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경제에서 창출된 약 1600만 개의 일자리 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음. 에너지부는 “화학, 산업 공정, 중장비 운송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에서 유해 배출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음

-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미국 국가 청정수소전략 및 로드맵에 따라 수소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난 3월에는 52개 프로젝트에 7억50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지원 소식을 전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4000억 달러(약 536조원)의 지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간은 없고 남은 갈 길은 먼 상황임

-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1일(현지시각) 4000억 달러의 기금 중 실제 대출된 자금은 65억 달러(약 9조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음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IRA를 통한 자금 조달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14억5000만 달러(약 2조원)의 대출금을 제공했고, 한 배터리 부품 업체는 12억 달러(약 1조6065억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태양광발전 단지와 배터리 저장 설비에 8억6100만 달러(약 1조원)를 지원했음

- 관건은 IRA 자금을 소진하는 데 있지 않고,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원활히 집행돼야 한다는 데 있음

- 미국 주 정부들도 정치적 색채를 넘어 IRA 세금 인센티브를 조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음. 해외 미디어 CNBC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IRA 자금의 85%가 공화당 우세주로 들어갔다고 전했음.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화당 주들이 향후에 있을 잠재적 세금공제 혜택을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그럼에도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한 주는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임. 로키 마운틴 인스티튜트(RM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130억 달러(약 17조원)로 2031년까지 필요한 자금의 11%를 확보했음. 가장 적게 조달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임. 조달한 자금은 1억2000만 달러(약 1607억원)로 1%도 미치지 못했음

- 보고서는 각 주가 해당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주 정부가 청정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센티브의 지원 조건을 적시한 지침과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플랫폼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음

(임팩트온 2024. 9. 3)